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예배당 |
| 어린이 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교육관 |
| 청년 모듬 | 주일 오후 3시 30분 | 교육관 |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시 | 음대 강의실 |
| 한민 말씀방 | 매일 | 단체 카톡방 |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6. 22 | 06. 29 | 07. 06 |
|---------|--------|--------|--------|
| 대 표 기 도 | 김새연 자매 | 최종열 성도 | 이상호 목사 |
| 성 경 봉 독 | 김새연 자매 | 최종열 성도 | 정환영 형제 |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목회자 모임 - 19일 12시 한민교회에서 모입니다.
4. 임명 - 공지원 자매께서 미디어 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5. 교회 홈페이지 제작에 관심있는 성도들께서는 목사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 생일 | |
|----|--|
| |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주일학교 | |
| 감사헌금 | |
| 십 일 조 | |
| 합계(Euro) | |
| 온라인헌금(6월) |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 | |
|----------------------------------|---|---------------|
| *찬 양 Gemeindelied | ----- | Liebevoll 찬양팀 |
| *송 영 Chor | ----- | 반주자 |
| *기 원 Altargebet | -----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539장 | 다같이 |
| 기 도 Gebet | ----- | 이예준 형제 |
| 성경봉독 Predigttext | 시 22 : 1 - 11(구p817) (Psalm 22:1-11) | 이예준 형제 |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 | 이상호 목사 |
| 설교 Predigt | 관계회복(IV) - 솔직한 감정 |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 ----- | 이상호 목사 |
| * 송 영 Chor | ----- | 반주자 |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과 입시와 취직 준비생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4. 백승민 자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5.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6.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영국 West Stanley의 한 마을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갱도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광부가 매몰 돼 숨졌습니다. 당시 그 지역 영국 성공회 주교였던 Handley Mowl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Mowl 주교는 갱도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책갈피가 하나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지만, 안팎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안에는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설켜 있는 모습만 눈에 띄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한 자리처럼 보이지요. 안쪽만 본 사람은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무렇게나 바느질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로의 메시지는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갈피의 안쪽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된 쪽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일용할 양식 / Max Lucado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지금 내 안에 감추어진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할까요?